

광양시 '공원녹지 기반' 원·신도심 연결한다

광양시가 광양읍 동천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녹지 공간을 조성해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16일 광양시에 따르면 공원녹지 사업의 연계성과 이동성 제고, 접근성 개선 등 전반적인 공원 녹지축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합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지역에 대해 공원녹지의 확충,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원녹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공원(144개) ▲광장(11개) ▲유원지(2개) 등 총 157개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광양읍은 옛 광양읍 성터를 중심으로 한 원도심과 목성지구, 용강지구 등 신도심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하는 기반 시설 개しが 절실한 실정이다.

광양시는 광양읍 용강지구-동천-원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해 동천 도로 개선 공사를 포함해 동천 경관광장 조성, 보도교 설치 등 공원녹지 공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친환경 녹지공간 전략 설정 164억 투입...도심 연결 보도교 개설·경관광장 조성

확충과 기반 시설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동천을 이용하는 시민이 꾸준히 증가하고 용강, 목성지구 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로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해 기존 동천 산책로와 연계한 보행 연결로인 '보도교 개설' 사업을 추진한다.

이곳은 남해고속도로 광양IC와 동천

으로 단절돼 주민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동천을 횡단하는 보도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광양시는 보행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실시계획, 관계부서 협의, 하천점용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보도교 설치를 올해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 대규모 공동주택을 계획 중인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간 원활한 통행을

위해 시비 2억원을 투입해 동천 경관광장 연결도로 개선 공사를 추진했다.

동천 경관광장 연결도로는 남해고속도로 광양 분기점과 주요 간선도로 통과 구간으로 교통량이 많고 보행로가 없는 구간이었으나, 지난해 11월 실시계획을 착수해 지난 3월 보행로 개설 등 도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현재 민간업체에서 추진하는 목성지구와 용강지구 단지 내 도로 등이 설치되면 동천을 중심으로 동천 경관광장을 거쳐 광양읍 도심을 연결하는 보행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양시는 녹색공간 확충과 등·서천

을 연결하는 휴식 공간으로 용강로터에서 동천 변을 잇는 경관광장 조성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 132억원을 투입해 동천 자연경관을 점막한 특색 있는 '경관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정인화 시장은 "공원녹지·광장은 각종 사회 기반 시설의 기초이자 녹색도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분야"라며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보행 안전을 위한 각종 공원녹지 시설 유지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뒤집기 한판! 살바싸움 열기 '후끈' 지난 15일 보성군 벌교스포츠허에서 '제2회 대한체육회장기 전국장사씨름대회'의 막이 오른 가운데 청살바 김규범 선수(경북 점촌중)와 홍살바 박정호 선수(경남 마산중)가 뒤집기 한판 승부를 걸고 경기를 펼치고 있다. <보성군 제공>

구례군-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

주민복지과 직원 280만원 상호 전달

구례군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과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례군-곡성군의 주민복지과 직원 2

8명이 280만원을 상호 기부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두 도시의 상생 발전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구례군과 곡성군은 지난해에도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상호 기부를 추진한 바 있으며 구곡순

담(구례·곡성·순창·담양) 장수벨트형 정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공직자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어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두 지자체가 상생 발전을 위한 긴밀한 우호 관계를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필기자

담양군,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추월산 등산로·용마루길 일원서 산불 방지 홍보

담양군은 "최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에 추월산 등산로와 용마루길 일원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3월 말부터 4월 초는 건조한 날씨와 산을 찾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는 시기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

캠페인에는 김은주 산림정원과장, 김상근 산림보호팀장을 비롯해 산림공무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담양소방서가 합동으로 참여해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와 산림 인접 지역 영농부산물 및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 등 산불방지 위반 사항을 알리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담양군은 2월부터 5월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대형산불로 의 확산을 막기 위해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각 읍·면에는 산불방지 대응반을 운영해 대면 홍보와 기동 순찰을 실시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48명(군 24, 읍·면 24)을 취약지역에 배치했다.

김은주 산림정원과장은 "봄철 산불 조심기간인 다음달 15일까지 적극적인 산불 예방 활동으로 인명 피해 예방과 산림자원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중한 산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장흥군, 임신 희망 부부 '난자 냉동비' 지원

가임 여성 20-40세 대상 시술 비용 50%

장흥군은 16일 "이달부터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 건강관리'와 '난자 냉동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최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난임, 고위험 임신, 미숙아 출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건강 임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은 임신희

망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임신·출산 관련 고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을 위한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여성 최대 13만원, 남성 최대 5만원까지 지원한다.

검사항목은 여성의 경우 난소기능검사(혈액), 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다.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은 임신희

망하는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20-40세 여성을 대상으로 난자 채취 시술비와 난자 동결 비용을 지원한다.

시술 비용의 50%, 최대 200만원을 1회에 한해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난소기능 저하(AMH 검사 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내, 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20-40세 여성이며 결혼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원하는 대상은 보건소에서 사전 신청을 하고, 검사뢰서를 발급받아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시술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장흥=노형록기자

공영민 고흥군수, 첫 모내기 현장 방문

'진육' 조생종 벼 조기 이앙...8월 초 수확 계획

공영민 고흥 군수가 올해 첫 모내기 영농 현장을 방문해 햅쌀 경쟁력 강화와 풍년 농사를 기원했다.

16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올해 풍년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조생종 벼 첫 모내기 작업'이 고흥읍 등암리 일원에서 시작됐다.

공영민 군수는 첫 모내기 영농현장을 방문해 직접 모판을 나르고, 이앙기를 조작하며 모내기를 도왔다. <사진> 모내기 품종 '진육'은 성숙기가 빠른 조생종 중 하나로, 밥맛이 좋고 병충해와 이른 봄 냉해에 강한 특성을 갖는다.

고흥군은 전국 평균 조생종 벼 식재 일인 4월20일보다 약 9일 빠르게 이앙을 시작해 대포 조생종 벼 재배단지 중 하나인 등암단지를 포함한 약 417ha에 조생종 벼를 심고, 오는 8월 초부터 수확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전국 햅쌀 시장 내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벼 재배 농가

의 소득 안정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이다.

공영민 군수는 "농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로는 행정이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농업인들이 고품질 조생종 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조생종 벼뿐만 아니라 올해 6월 중순까지 모내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육묘용 상토,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농산물 생산비 절감 시설·장비 등 벼 재배에 필요한 영농 기자재를 적기에 공급·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흥군은 풍부한 일조량과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기온이 온화해 조기재배와 수확에 유리한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햅쌀은 쌀 판로 확보와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인 '고흥몰'을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고흥=최봉환기자

여수시,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용역 착수

170억 투입 옛 문수청사 내 지상 3층·연면적 3천㎡ 규모

여수시는 "최근 생활문화센터에서 전남도 미디어 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전남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청자미디어센터(조감도는 옛 문수청사 내 지상 3층, 연면적 3천㎡ 규모로 미디어체험관, 스튜디오, 디지털교육실, 다목적 공개홀 등을 갖춰 오는 2026년 건립될 예정이다.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70억원이 투입된다.



건축설계 용역 착수보고회에는 시민화산업국장, 건축 허가과장을 비롯

해 시의회,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등 총 13명이 참석했다.

공개 공모를 통해 당선된 지평건축사무소에서 센터 건축설계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으며, 참석자들은 시청자미디어센터의 대지분석, 공간구상, 동선·주차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여수시는 오는 8월까지 건축설계 용역을 완료 후 연내 센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다.

서재훈 문화예술과장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시대에 전남도민과 여수시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센터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진선기자

장성군 '농촌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모집

23일까지 신청...최대 5천만원 지원

장성군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참여할 '액션그룹' 4기를 23일까지 모집한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의 유향형 자산과 자생 조직을 활용한 ▲특화산업 육성 ▲공동체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이다.

모집 분야는 ▲홍보(촬영·디자인) ▲문화(문화·예술) ▲관광 ▲환경(환경·산림) 4개 분야이며, 장성군에 주소권을 둔 주민 10명 이상이 결성한 단체 또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다.

장성군은 앞선 2019년 축령산을 활용한 '편백술 어울림 치유여행 프로젝트'

가 선정되면서 사업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축령산 숲배움터가 테마로 환경교육재단으로부터 국내 최초 '숲배움터 국제 인증(LEAF)'을 획득하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수 사업에 포함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이번 4기 '액션그룹'은 신규 그룹은

물론 기존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참여 그룹도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 시 자부담 20% 포함, 2천만~5천만원 규모의 지원을 받는다.

신청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문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담당자 이메일(js3949002@naver.com)로 전송하거나, 사업단 사무실(홍길동테마파크 전시관, 황룡면 아곡리 384)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장성=김태기자



축령산 숲배움터 현장.



<장성군 제공>